

2018년도 임시총회 회의록

1. 회의개요

가. 회의명 :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 임시총회

나. 회의일시 : 2018년 12월 21일(금요일) 14:00

다. 회의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청사 의회동 3층 공동회의실
(세종특별자치시 군청로 87-16)

라. 참석인원 : 재적인원 67명중 참석 37명(위임 8명 포함), 불참 명

마. 회의순서

1)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2) 성원보고

3) 회장인사

4) 전자회의록 처리

5) 보고사항

가) 직원 채용 보고

나) 세종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 운영위원회 규정 개선

다) 신규 회원 가입 및 탈퇴 회원 보고

6) 부의(안) 심의

가) 2018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변경(안)

나) 2019년도 직원 인건비 확보(안)

다) 2019년도 사업계획 및 법인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라) 회장 선출

7) 그 밖의 사항

8) 폐회선언

2. 회의내용

가.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사무처장 : 식순에 의해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 임시총회를 시작하겠

다고 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 구령으로 참석자 전원 경례, 바로 시키고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다.

나. 성원보고

○회장 : 총 재적인원 51명 중 참석 31명, 위임 8명 포함한 참석 37명으로 성원되었음을 보고하다.

○회장 : 2018년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 임시총회 개회를 선언하다.(의사봉3타)

다. 회장인사

○회장 : 바쁜시간 참석해주셔서 고맙다고하다. 그동안 회원분들의 성원으로 10년이 넘게 회장을 했다고하다. 그동안 제가 연임을 하는 바람에 갑자기 선출을 하다보니 매크럽지 못해서 늦게 회의가 시작되었고 여러모로 미숙하지만 너그라이 이해해주시기 바라다. 오늘 회의는 중요합니다. 지난 이사회에서 불미스런 일로 이사회를 파했다. 오늘 이사회를 다시 하면서 임시총회를 잡게 되었다고하다. 우리 협의회가 병아리 같은 회이다. 세종시가 출범한지 불과 5년 되다 보니 걸어가는 걸음이 뒤뚱거리기도 하고 병아리 같이 가는 걸음이 눈에 띌수 있다고하다. 이해해주시고 그동안 감사 말씀드리다. 고문을 비롯해 회원, 임원분들 모두가 애써주셨다. 저를 믿어서 한발자국 오늘까지 오게 되었다. 오늘은 중요한 임시총회이다. 3대 회장을 뽑는 자리인 만큼 중요한 자리라고 말하다. 1대, 2대는 설립하면서 했다고하다. 오늘 선출하는 회장은 3대가 된다. 한발짝씩 갈 때 여러분들 힘이 필요하다고하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오늘까지 빌전을 했다고 말하고, 앞으로 숙제가 많은 협의회다. 좋은분이 선출되어야 하고 앞으로 회원분들이 힘이 되어 주셔야 하고. 회장은 중립을 지켜야 하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제가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다. 오늘 참석해주신 회원님들 임원분들 모두 감사 드린다고 말하면, 보고사항으로 가겠다고 하다.

라. 전차회의록 처리

○사무처장 : 앞서 2017년 12월 20일(수) 진행되었던 2018년도 정기총회 회의록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다.

○회장 : 2018년도 정기총회 회의록을 보고하고 이의 있는지를 물다.

○회장 : 전차회의록 처리에 대한 동의를 구하다.

○다수회원 : 동의하다.

○다수회원 : 재청하다.

○회장 : 전차회의록이 처리되었음을 선포하다.(의사봉3타)

○사무처장 : 탈퇴회원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 성원에 관계된 사항이다.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 회원이 기존에 단체회원 2곳 포함 67명이라고 말하다. 오늘 오전 이사회가 있

었는데 탈퇴에 대한 의사를 밝힌 회원 4분과 3년 이상 회의가 미납되어있는 12분 포함에서 16분이 오늘 오전 이사회 의결로서 통과가 되서 16분이 빠진 67명에서 51명으로 회원이 확정되었다고 하다. 그래서 이번 총회의 정원은 51명이라고 하다.

마. 보고사항

1) 직원 채용보고

○회장 : 사무처장이 2018년도 직원채용에 대해 보고하겠다고 말하다.

○사무처장 : 김대현 팀장과 사무처장 퇴사로 인해 6월 1일부터 김준태 주임과 이해윤 사무처장이 임면되었다고 말하고, 사회복무요원이 재배치로 인하여 계약직 서정숙 사회복지사 포함하여 총 3명 채용되었다고 보고하다.

○회장 : 2018년도 직원 채용보고에 이의 있는지 묻다

○다수회원 : 이의 없다고 말하다.

○회장 : 직원 채용보고가 처리되었음을 선포하다.(의사봉3타)

2) 세종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 운영위원회 규정 개선

○회장 : 사무처장이 세종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 운영위원회 규정 개선에 대해 보고하겠다고 말하다.

○사무처장 : 기존의 세종사랑나눔푸드마켓이라는 사업으로 기부식품등제공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세종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운영위원회로 변경이 되어 변경하였다고 말하다. 기존 운영위원회 규정 12조 해산, 위촉장 부분이 삭제 및 신설되었다고 말하고, 조문의 내용이 재배치하고 흐름에 맞게 위치를 이동하다 보니 기존내용이 이동하였다고 말하다. 8페이지는 개정안이고,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 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라고 말하다.

○회장 : 개정은 임의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방침과 규칙에 따라 변경하게 되었다고 말하다.

○회장 : 운영위원회 규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묻다.

○회장 : 세종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 운영위원회 규정 개선에 대한 동의를 구하다.

○다수회원 : 동의하다.

○다수회원 : 재청하다.

○회장 : 세종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 운영위원회 규정 개선이이 처리되었음을 선포하다.(의사봉3타)

3) 신규 회원 가입 및 탈퇴 회원 보고

- 회장 : 사무처장이 신규 회원 가입 및 탈퇴 회원에 대해 보고하겠다고 말하다.
- 사무처장 : 기존 회원은 67명이고 44명이 회원가입을 요청을 하였고, 오늘 회의 전 30명 회원 가입이 요청이 있었다고 말하다. 앞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회의한 결과 총 74 명의 신규 회원 가입안은 신규회장이 선출이 되면 바로 진행하겠다고 말하다.
- 회장 : 운영위원회 규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묻다.
- 회장 : 신규 회원 가입 보류와 탈퇴 회원 보고에 대한 동의를 묻다.
- 다수회원 : 동의하다.
- 다수회원 : 재청하다.
- 회장 : 신규 회원 가입 및 탈퇴 회원 보고가 처리되었음을 선포하다.(의사봉3타)

바. 부의(안) 심의

1) 제1호안 2018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변경(안)

- 회장 : 2018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변경에 대해 의결을 주문하고 사무처장에게 그에 대한 내용설명을 요청하다.
- 사무처장 : 우리 협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8년 법인 기부식품등제공사업 회계 세출예 산 전용을 심의·의결하고자 말하다.
- 회장 : 시간관계상 자세한 세부내용은 총회 자료집으로 갈음하겠다고 하며 제1호 의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지 묻다.
- 회장 : 특별한 의견이 없는지 묻고 제1호 의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다.
- 다수회원 : 동의하다.
- 다수회원 : 재청하다.
- 회장 : 아니면 “아니오” 찬성하시면 “예”라고 가부를 묻다.
- 다수회원 : 전원이 동시에 “예”라고 만장일치로 의결을 찬성하다.
- 회장 : 제1호 의안 2018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의사봉 3타)

2) 제2호안 2019년도 직원 인건비 확보(안)

- 회장 : 2019년도 직원 인건비 확보(안)에 대해 의결을 주문하고 사무처장에게 내용설명을 요청하다.
- 사무처장 : 2019년도 직원 인건비 확보(안)입니다. 26페이지와 27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되겠다고 말하다. 현재 협의회에서는 기부은행 담당자가 국비에서 지급되는 수당으로 인

건비가 지급되고 있다고 하다, 26페이지 1번 항목을 보면 201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필요한 인건비는 급여 10,320,000만원, 사회보험 부담금 1,340,280원이라고 말하다. 2018년도에는 사회보험 부담금이 우리 협의회 비지정후원금에서 지급이 되었고, 기부은행 담당자의 급여는 두 개 사업의 수당을 합해서 총 1,100,000이 지급 되었다고 말하다. 현재 비지정 후원금이 430,000원 남은 상태여서 기부은행 담당자의 인건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또한 좋은이웃들 수당의 경우 1년에 10개월만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개월 인건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하다. 2019년도에는 급여 2개월분 1,000,000원 사회보험 부담금 1,340,280원 총합 2,340,280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하다. 기부은행 담당자 근무 현황은 27페이지 참고해달라고 하다. 2017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 담당자가 3번 교체된 사항이다. 담당업무는 기부은행, 사회공헌센터, 좋은이웃들 부담당자로 담당자가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나 인건비가 부족한 상황이라 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늘 있는 상황이라고 하다.

○회장 : 자세히 살펴보시고 제2호 의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지 묻다.

○회장 : 특별한 의견이 없는지 묻다

○김부유 회원 : 해마다 진행되는 사항이냐고 묻고, 이 부분은 해마다 발생하는 사항이면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에 정규직화 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예산에 대한 이의제기가 아니라 예산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직원들이 자리가 불안하면 의욕이 안생긴다.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회장이 임원들이 관련 기관과 예산확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다.

○회장 : 금년에 처음 중원이 되었고 노력해서 임원들이 협력해주시면 내년에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하다. 제2호 의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다.

○다수회원 : 동의하다.

○다수회원 : 재청하다.

○회장 : 아니면 “아니오” 찬성하시면 “예”라고 가부를 묻다.

○다수회원 : 전원이 동시에 “예”라고 만장일치로 의결을 찬성하다.

○회장 : 제2호 의안 2019년도 직원 인건비 확보(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의사봉3타)

3) 제3호안 2019년도 사업계획 및 법인 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회장 : 2019년도 사업계획 및 법인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주문하고 사무처장에게 내용 설명을 요청하다.

○사무처장 : 제 3호 2019년도 사업계획 및 법인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2019년 세입세출안을 참고할수 있다고 하다. 29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세입 예산은 435,514,000원입니다. 국고 보조금 87,276,000원, 여기에는 지역사회봉사단과 기부은행, 좋은이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보조금 261,201,000원, 기타보조금 30,400,000원입니다. 조치원중학교 사고학생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후원금수입 5,670,000원, 기타잡수입 1,610,000원, 이월금 49,35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435,514,000원입니다. 인건비 215,910,000만원, 업무추진비 1,120,000원, 운영비 27,303,000원, 쳐우개선비 8,040,000원, 일반사업비 183,141,000원입니다. 초록띠가 붙어 있는 것이 2019년 세입세출현황이라고 하다. 자세한 부분은 이것으로 검토하시면 될 것 같다고 하다.

○회장 : 3호안 보신 후에 문제 있거나 하는 부분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 문제있습니까

○회장 : 없습니다.

○회장 : 아니면 “아니오” 찬성하시면 “예”라고 가부를 묻다.

○다수회원 : 전원이 동시에 “예”라고 만장일치로 의결을 찬성하다.

○회장 : 제3호 의안 2019년도 사업계획 및 법인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의사봉3타)

4) 제4호안 제3대 회장선출(안)

○회장 : 제4호 의안 제3대 회장선출의 건으로 임기가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년으로 회장 임기만료에 따라 의결을 주문하고 사무처장에게 내용 설명을 요청하다.

○사무처장 : 제4호 의안, 제3대 회장선출 승인안입니다. 36페이지를 살펴봐주시면 정관 13조와 제15조 3항에 따라 회장임기 만료로 회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37페이지를 살펴보시면 회장선거안내라고 하다. 선거절차는 선거인명부 확인 후, 입후보 등록 및 소견발표, 투표 및 개표를 한 후 당선인 공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다. 절차에 따른 세부내용을 짚어드리겠다고 하다. 선거인 명부는 총회장 입구에 비치되어 있으며, 의무를 다 하고 있는 회원에 한해 투표를 하실수 있다고 하다. 의무를 다하고 있는 회원은 정관에 의해 회비 납부를 완료하신 분이라고 하다. 후보자 등록은 정관 14조 1항에 따라 총회에서 입후보 안내에 따라 하며, 입후보 등록은 신청서 작성 후 후보자별로 의무를 다하고 있는 회원중 참관인 한 명을 추천합니다. 입후보자 소견 발표 후 투표가 시작이 되면 뒤편에 마련되어 있는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하신 후 투표 용지를 교부받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앞

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고 하다. 투표 주의사항은 무효투표가 있으며, 지정투표용지 미사용과 기표란 밖이나 경계에 기표된 것, 이중으로 기표된 것, 어느날에 식별을 했는지 불가능 할 때, 지정기표도구 이외에 기표된 것,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 이탈, 불필요한 문자나 표식이 있을 경우, 기타 유용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선거 무효의 경우 총 투표수가 투표인 날인 수를 초과하였을 때 대체투표를 실시합니다. 당선인은 과반투표로 정해지며, 다수의 후보일 경우 1차 투표 후 1위 및 2위 득표자의 결선투표로 진행합니다. 정족수 미달인 경우 투표일 재공고 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선인 투표는 당선이 결정이 된 후 즉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회장의 임기가 2019년 2월 28일이며 차기회장은 2019년 3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 검토 해주시고 의견을 요청하다. 오늘 회장후보가 두 명인 관계로 재투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최재민 감사: 후보가 2명이기 때문에 재투표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하다

○다수회원: 동의하다

○사무처장: 오늘 회장 후보가 2명인 관계로 재투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 정견발표를 하겠습니다. 1번은 김부유 회원, 2번이 구본천 회원입니다. 기호1번부터 정견발표하시고 투표로 들어갑니다. 10분간 정견발표하겠다고 하다

○다수회원: 시간이 너무 길다고 하다.

○다수회원: 5분만 하자고 하다

○회장: 5분이 좋겠는지 재차 확인하고 5분만 하겠다고 하다.

○사무처장: 입후보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발표가 끝나면 뒤쪽으로 가셔서 선거인명부 확인하시고 앞쪽으로 오셔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사무처장 : 입후보 등록을 마치신 것 같습니다. 후보분들의 소견 발표를 듣겠다고 하다.

잠시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대 사회복지협의회 회장후보는 2명입니다. 기호 1번 김부유 회원의 소견발표 듣겠습니다.

○후보 1번 김부유 : 안녕하세요 김부유입니다. 오늘 선거가 가장 어려운 선거 같습니다. 어제 제가 대한민국해병대총연합회 3대 회장이 선출되었다. 우연의 일치인지 3대 회장이다. 대한적십자에서 23년을 근무했으며, 많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2010년 연기군 의원을 하며 행정복지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다. 예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다. 많은 생활시설이나 복지관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더 어려워 일한만큼 대가를 못 받는다. 연기군청에서 공무원생활을 15년을 했지만 이제 알 수 있다. 공무원 생활시절 못느낀 것을 의원이 되서 많이 느꼈다. 의원활동하면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지위향상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호봉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

회복지사 호봉인정을 하도록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전국에서 2번째일 것이다.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이 광의적이고 포괄적이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서비스 이용 대상자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 지론입니다. 말로는 사회복지라고 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서면서 사회복지가 강화됐지만 사회복지 현장은 녹록치 않다. 최근 언론 보도 봐서 알겠지만 사회복지에 관심도 많고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사용하지만, 생각하는 만큼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 6년이 되며,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달라고 이춘희 시장에게 부탁했다. 사회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져달라고 했다. 그동안 개발과 건설이 주된 사업이었지만 사회복지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했다. 신도심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잘 발전하고 있다. 의원시절 사회복지시설기관은 신청사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구도심에 더 많다. 육면지역에 복지시설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많다. 이시장님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복지 전공한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은 첫 번째는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협회 대표를 맡으면 보조금 주는 공무원들에게 말하기 어렵다. 나부터 보조금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아까 직원 인건비 관련된 예산은 내년에도 후년에도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예산확보가 어렵다. 제가 할수 있는 일들만 하겠다. 제가 회장이 되면 첫째, 협의회 문턱을 낮추어서 개인이나 기관단체 회원의 수를 늘리겠습니다. 협의회의 역량은 회원수에 비례한. 누가 뭐라해도 민주주의 국가는 선출직이 지배한다. 선출직과 관계가 어려우면 예산지원 못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힘을 과시할 수 있는건 회원수다. 회원수 증가로 재정도가 안정적인 자립도를 구축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생활시설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청과 의회, 국회와의 소통을 통해 고통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력이 없으면 해결을 못한다. 정치가 개입하지 않는 예산확보는 어렵다. 잘알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그정도의 경력을 쌓았다고 생각다. 세 번째는 우리 협의회를 비롯해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협의회 위상을 강화해 우리 협의회 소속의 이사, 회원,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그동안 복지시설과 시설간 유대감이 적었다고 생각한다. 시청과 의회는 물론이고 복지시설과 MOU를 체결하고 함께 상생하고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 협의회 사무실이 과거 파출소 자리였고 체육회에서 잠시 사용하다 이전했다. 가끔 사무실 가면 너무 좁습니다. 직원들은 등을 돌리지 못할 정도로 좁은 공간에서 일하고 아래 마켓은 물품 쌓으면 직원들 앉을 자리도 없을 여유가 공간도 없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진도심에 복합아울렛 같은 많은 유효공간이 있습니까. 이런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을 반드시 쾌적한 환경으로 바꾸하겠다. 다섯번째는 협의회의 사업영역을 넓혀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푸드뱅크 사업 안정화 및 직

원 급여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하겠습니다. 저는 당소속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18년 5월 선거직전까지 양승조 국회위원 보건복지위원장 사회복지특보를 맡아 대한민국 사회복지에 관련된 고충 해소에 많은 역할을 했다. 사회복지사 광역시이기 때문에 국회 올라가서 어려운 입장, 현안문제 노의할 수 있고 풀어갈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가 재정자립도를 비롯해 협의회 위상을 바로 세우려면 세종시에서 보조금받는 시설장이 아닌 보조금 관련없이 언제든지 시장을 만나 요구할 수 있고 후배 시의원들 만나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보조금과 얹매이지 않는 회장을 선출해 주십시오. 회장 출마 의지는 개인욕심 아니다, 이미 많은 단체장 역임했고 현재도 맡고 있다. 감투의 욕심이 아니다. 입후보한 원인은 이사님들 몇 분이 사회복지협의회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다른 단체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 제가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열심히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사님들, 회원님들 자궁심 분명이 높여드리겠습니다. 저를 지지해주시면 신명을 다바쳐서 최고의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무처장 : 다음은 기호2번 구본천 후보님의 소견말씀입니다.

○기호2번 구본천 : 기호 2번 구본천입니다. 앞서 김부유 후보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많은 일을 하시겠다고 공헌하셨습니다. 누가 되건 사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후보는 2명입니다. 선거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서로가 같이 연합해서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가 올바로 설수 있도록 연대해서 힘을 합해서 하는 협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10일 밖에 남지 않았다. 여기 계신 임원분들 회원분들 가장 바쁜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계신다. 밖에는 캐롤송이 나와야 하는데 요즘 여유가 없어졌는지 양보가 없어졌는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함께 하는 것이다.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복지 약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웃어줄 때 거기에서 자부심을 갖고 또 희망과 보람을 느끼고 왔던 것이 우리 복지현장입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시점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함께 그일을 위해서 우리가 낙후되어 있는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살려야합니다. 누가 합니까.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26년간 사회복지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제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 새로운 도약을 함께 약속드립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내실있는 협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회원 중심의 협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협의회 역할이 중요합니다. 협의회 역할은 혼자 독단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가는 것입니다.

협력이라는 것은 파트너가 있어야합니다.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종의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회관을 건립함으로 말미암아 각 기관단체들이 그곳에 모여서 연합하고 힘을 모으고 우리 일들을 해결해나가는 그런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협의회에는 많은 유능한 분들이 계십니다. 입후보 출마하신 김부유 후보자를 비롯해서 많은 재능있고 경험 많으신 회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분들이 함께 협력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협의회는 현장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런 역할을 개선하는 스스로의 협의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나눔과 정책과 기획과 교육 분야에서 회원분들이 참여해서 직접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수 있는 협의회가 되어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협의회의 문턱을 낮추고 정보 교류 소통의 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사랑방과 같은 복지 플랫폼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와 나눔을 통해 시너지를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그런 사회복지협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선배를 존중하고 후배를 존중하는 이런 복지 풍토가 우선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연합하여 해나가야할 일들입니다. 저부터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휴먼파트너도 동반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협력기구입니다. 그래서 민간 협치의 당당한 파트너가 돼가도록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일들을 당당하게 정책에 반영시키고 그것을 요구하는 그런 복지기구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직능단체와 연합하기도 하고 언론과도 정치와도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무처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업무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규정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위상이 바로 서기 위해서 기기에 걸맞는 제규정들을 보완해야 될것입니다. 합리적인 인사관리, 투명한 재정서비스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사회복지는 정치적인 중립이 필요합니다. 이 원칙이 깨지면 우리가 돌보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복지 약자들의 입장은 대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때마다 철새처럼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 현장에서는 중심을 잡고 그리고 갈망하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 수장도 정치성향이 배제된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천가인 저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또 수장이 많으면 배가 침몰한다고 합니다. 싸우다가 침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배려와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지적질하면 더 많은 손가락이 자기 자신을 가르킨다고 합니다. 회원들이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겠습니다. 32만 세종시민의 신뢰를 받는 협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회원권익을 옹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사회복지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하루 열심히 일하고 다음날부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65일 그 업무를 꾸준히 배분하고 계획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따라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합시다. 함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본천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사무처장: 두 후보들의 소견발표 들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참관인을 한분씩 지정해주십시오.

○기호2번 구본천: 양혜경 회원을 지목하다

○기호1번 김부유: 김종봉 회원을 지목하다

○사무처장: 참관인 신고서 작성해주십시오.

○사무처장: 투표가 끝났으니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37개입니다. 개표하는 과정은 선거록에 남게 됩니다.

○참관인 두분은 투표함에서 투표용지를 꺼내면서 투표용지 개수를 세고 수석부회장과 감사가 이를 확인하다.

○사무처장: 투표용지 37개 확인했습니다.

○사무처장: 감사께서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감사: 발표하겠습니다. 개표하다

1번 김부유후보가 16표, 2번 구본천 후보가 21표로 구본천 후보가 당선됨을 선언합니다.

○회장: 당선소감 하십시오.

○기호2번 구본천: 먼저 부족한 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맡은 소임이 막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함께 후보자로 계셨던 김부유 후보자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협력해주시고 사회복지 협의회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서 소견발표 할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협의회는 회원 중심의 협의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예산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부분들을 올바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의견들 주시고 그것을 취합해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중에는 회의장에 단임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관에 회장은 단임제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에 동조를 해주시면 차기 제규정을 만들때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은 소신을 갖고 임하도록 밀어주시고 저는 앞에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연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폐회선언

○회장: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데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협의회가 발전하게 된 것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그동안 맡은 일이 많아서 협의회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두 분 다 훌륭하고 두분을 보고 제가 참 행복하고 마지막으로 가겠구나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손길로 당선이 되었으니 구본천 당선인 축하드리고 앞으로 김부유 회원님은 개인적으로 협의회 일할때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협의회 잊지 마시고 더 활약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악한 현황에서도 훌륭하신 분들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센터를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모로 어려움이 많이 있으나 임원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잘되고 협의회가 잘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회장: 폐회를 하겠습니다.(의사봉3타)

15시 50분에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 임시총회 회의를 폐회하다.

2018년 12월 21일

기록자 : 박군남 (인)

확인자 : 사무처장 이혜윤 (인)

정태춘

(인)

김봉주

(인)

구본천

(인)

양혜경

(인)

강경숙

(인)

구본성

(인)

김은희

(인)

김종봉

(인)

박인순

(인)

신소현(행자)

(인)

이희경

(인)

최재민

(인)

김인환

(인)

박종숙

(인)

한대권

(인)

윤은순

(인)

오백교

(인)

이평선

(인)

이상오



전재선



김부유



장백기



전미경



이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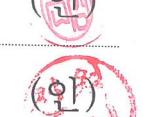
임명옥



세종장애인판매시설



이주미



장은정



전월순



대 이규연(김재선)